

서구 근,현대조각교육방식의 수용과 한국적 변용

2020.12.

“2020 중국광주 조각과 공공미술 포럼”학술대회에서 진행되는 “근.현대 조각교육의 전개 ” 에 대한 발표에 참가한 미국, 한국, 일본의 외국발표자 3인 중 일원으로 참가하여 발표기회를 갖게 된 점에 대해 주최기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 교육현장의 일원으로 이 주제는 매우 큰 범위라서 주어진 시간에 발표하기에 많은 난제가 있다는 점도 밝히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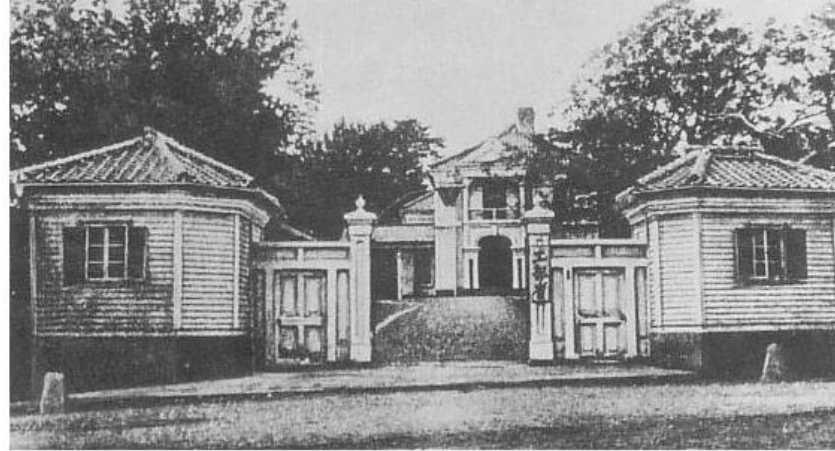
한국의 경우 근.현대에 대한 시기적인 구분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통례적으로 후기조선시대를 거쳐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 한국전쟁 이후 1970년대까지의 미술을 근대로 이후를 현대로 해석하는데 큰 이의를 갖지 않는다. 미술교육도 이 구분에 맞추어 전개하고 뚜렷한 근.현대의 구분 준거가 명료하지 못한 점은 양해를 바란다. 특히 근대이전의 미술교육체계에 대한 자료는 매우 미비하여 참고문헌을 통해 선행연구의 문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전달하는 점을 밝힌다.

근대조각교육방식의 수용

1910년 일제의 강점기 이전에 조선의 조각교육에 대한 접근은 사실상 오늘날의 조각(Sculpture)이 아닌 기법으로써의 도제식(徒弟式) 전통조각교육이었다. 건축, 공예, 장식의 차원에서 존재하였고 따라서 장인들의 전수개념으로 조각교육이 가능했었다. 사실 조선시대에는 서방국가와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쇄국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의 교육방식이나 종교, 신문물 등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광복이전의 조각교육을 언급하기에 앞서 일본의 근대조각교육방식을 수용한 조선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서방의 조각교육을 어떻게 수용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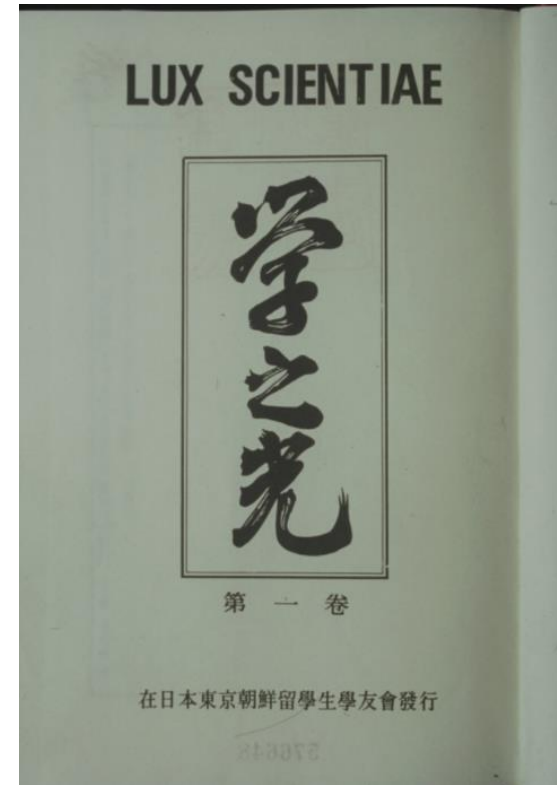
1876년 일본정부는 공부미술학교(工部美術學校)를 개교하였고 1875년 이탈리아에서 “일본파견조각교사선발경기회”를 열고 50명의 지원자 가운데 수석을 차지한 빈센조 라구자(Vincenzo Ragusa, 1841-1927)를 공부미술학교의 교사로 초빙하였다. 이 시기의 조각교육방식은 빈센조 라구자가 工部美術學校에서 가르치는 서양의 아카데미 교육방식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공부미술학교의 미술교육은 순수 예술을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식산흥업(殖産興業)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순수미술의 한 장르로서 조각교육은 동경미술학교에서 기술이 아닌 예술의 차원에서 조각을 가르치며 정착되었다. 1899년 동경미술학교에 소조부를 신설하고 조각과에서 목조와 소조를 가르치면서 학과명칭을 ‘조각과’라고 한 것은 일본화와 서양화와 나란히 순수예술의 범주에 조각을 위치시켰다는 점을 의미한다. 1910년대에는 국내에서도 조각이라는 용어를 기법보다는 미술의 장르로 나아가 학문의 영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日本 工部城 工部美術學校 1876年 設立

1915년에 안곽(安廓:1886~1946)이 "學之光"에 기고한 '조선의 미술'이라는 글에서도 미술을 회화, 조각, 공예로류 분류하면서 "美術은 精神이 物類 中에 現한 者"라고 언급하고 있어 조각은 미술이며 정신활동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인 1914년 김진섭(金振燮)이 동경미술학교로 유학을 떠났고 이어 1920년 김복진(金復鎭 1901~1940)이 동경미술학교에서 조각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조각 개념에서 교육이 시작되었다. 김복진은 1925년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미술연구소를 통해 제자들에게 소조기법으로 사실재현적인 인물상의 표현을 가르쳤는데, 이는 전통 조각과는 전혀 다른 기법으로 제작된 사실적인 인체상이 주류로 자리를 잡았다.

조각이라는 미술장르와 관련하여 조소(彫塑)라는 용어가 조각교육에 등장한 것도 이 시기이다. 현재도 한국에서는 학과의 명칭이 조소과(彫塑科)로 사용되고 있는데 彫刻이라는 'Carving'과 塑造라는 'modeling'의 합성어로 1894년 동경미술학교 출신인 오무라 세이(大村將)가 만들어낸 명칭이다. 양을 덜어내고 살을 붙이는 두가지 기법을 합친 신조어로 1894년 동경미술협회잡지에 조소론을 발표했다. 조소라는 단어가 일본과 한국에서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동경미술학교의 조각과에서 이 두가지 기법만을 가르쳤고 광복 이후 한국의 미술대학을 설립할 당시 동경미술대학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조소(彫塑)라는 단어가 학과명칭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동경미술학교에서는 등신대의 누드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교육이 근간이 되었고 광복 이전의 조각교육은 이러한 틀에서 크게 여성누드모각인 사실재현적 양식의 조각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공공장소에 세워진 동상제작의 사례들도 등장한다. 대표적인 예로 徽文學校의 閔泳徽銅像(1927)과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銅像(1928)이 있다. 근대조각교육에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묘사가 절대적인 방법으로 정착했다. 서양에서 유입된 사실재현적 방식은 소조기법교육과 동시에 목조각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14年 4月 創刊, 在日本東京
朝鮮留學生學友會 機關紙

光復 以後 부터 1950年代: 多様な 西洋彫刻의 流入

1945년 광복 이후 곧바로 1946년 서울대학, 홍익대학 등에서 미술과를 설립하고 조각교육을 실시했다. 교수진은 동경미술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동경미술학교의 아카데미한 사실주의 양식을 그대로 교육에서 전수하였다. 특히 김경승(1915~1992)金慶昇(홍익대학,이화여대), 김종영(金鍾瑛1915~1982)(서울대학), 윤효중(尹孝重1917~1967) (홍익대학)은 대학에서 이 시기에 조각교육을 담당했던 교육자 겸 조각가였다.



金慶昇, 少年立像, 1943

尹孝重, 弦鳴, 1942



어찌 보면 이 시기도 광복이전의 조각교육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후반부터 서양과의 접촉으로 추상조각이 유입되면서 한국의 조각교육은 새로운 방향을 맞이한다. 한국에서 조각교육을 받은 제1세대인 김정숙(金貞淑 1917~1991)과 송영수(宋榮洙 1930~1970) 등은 추상조각을 수용하면서 현대조각을 모색했고 이들은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추천작가로 등장하는 등 새로운 조각시대를 주도한다. 이러한 서양과의 접촉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서구의 조각교육체계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동경 미술학교의 교육체계가 바탕에 깔려 있었고 이 시기부터 세계미술에 대한 정보를 일본에서 발간되는 각종 미술서적에 의지하였다. 이처럼 광복 이후에도 일본 미술계와 조각교육의 영향은 지대했다. 특히 일본의 '미술수첩(美術手帖 1948年 創刊)'은 적극적으로 서양의 현대미술을 소개하였고 이를 통해 조각교육도 세계미술의 동향을 접할 수 있었다. 1957년 1월호 미술수첩은 "현대작가 150인: 구미의 화가와 조각가" 라는 특집호를 꾸렸는데 작가들의 작품과 더불어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미술교육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50년대에는 추상미술에 대한 관심이 현격하게 증폭되었고 한국전쟁 중에도 국제조각공모에 한국대표로 참가한 김종영(金鍾瑛)은 세계조각의 추세가 추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조각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金鍾瑛, drawing & 抽象彫刻

이러한 추상조각에 대한 열풍과 더불어 구상조각에도 새로운 흐름이 열렸다. 사실재현의 모더니즘적 구상 조각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상조각을 구축한 권진규(權鎭圭 1922~1973)는 독자적인 조형세계 즉 "한국적 리얼리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눈에 보이는 대상의 재현이 아닌 주관적 해석과 자신의 미의식을 담아내려는 노력과 함께 교육기관에서의 조각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르델(Antonio Bourdelle), 마리노 마리니(Marino Marini), 지아코모 만추(Giocomo Manzù) 같은 작가들의 양식, 즉 관전풍의 아카데미한 사실주의 양식을 벗어나 새로운 양식을 조각교육에서 구축하고자 했다. 그 이후 조각교육의 큰 변화는 미국과의 교류라고 볼 수 있다. 1957년 덕수궁에서 열린 <미국현대8인 작가전>은 추상표현주의 회화는 물론 추상조각 작품이 출품되었고 미국의 현대미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1957년 가을에 있었던 <국전>에 추상조각이 출품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이 될 만큼 중요한 전시였고 조각교육에도 큰 부분을 차지했다.



權鎭圭 Studio & 作品

한국의 50년대 조각교육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인적교류는 장발(張勃)과 김정숙(金貞淑)이었다. 장발(1901~2001)은 일제시대에 미국에서 미술이론을 공부했고 한국전쟁 동안 미국 미네소타에 머물렀으며 서울대 미대학장으로 재직 시 미국의 조각가들이 서울대학교에서 추상조각과 현대조각이 원리를 가르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한국교육의 원조 프로젝트인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조각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미국의 현대조각을 직접 경험한 조각가는 김정숙이다. 1955년 한미재단의 후원으로 미국 미시시피 주립대학에서 1년 반의 조각교육을 받고 그 후 1958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산업디자인과 금속공예를 공부하였다. 한국 최초로 조각을 공부하기 위해 서양으로 유학을 다녀왔고 당시 화가들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던 시절 미국을 선택하여 한미조각교육의 교류에 마중물을 마련하였다. 1957년 홍익대 교수로 미국에서 배운 현대조각의 지식과 많은 자료들(화집, 슬라이드 및 영상자료 등)이 후학에게 현대조각을 교육하는 자양분으로 쓰였고 중점적으로 소개한 용접조각은 그 이후 60년대까지 용접조각의 유행을 일으켰다. 이렇듯 한국의 근대조각교육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동경미술학교를 통해 시작하여 한국전쟁 이후 서구의 조각을 접하면서 조각교육에 다양성을 여는 시기라고 사료된다. 하지만 외국과의 직접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활성화 되기 전이며 국가의 경제력이나 경쟁력 또한 원만한 교섭을 받쳐주기에는 부족한 시기였고 조각교육분야에서도 단편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후학양성을 통한 많은 조각가들의 국제적인 교류가 이 시기부터 발화되어 진행되었다는 점은 한국의 많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金貞淑 教授,
(1917~1991)

현대조각교육방식의 한국적 변용

1970년대부터 한국의 현대조각은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여 왔다. 이 교류는 유학이나 인적교류, 정보공유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가장 큰 부분은 유학이었다. 유학의 경우, 미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이 주로 유학의 대상지였고 물론 일본을 선택한 유학생들도 소수가 있었다. 대학에서의 조각교육방식은 미국과 유럽의 조각교육 방식 중에서 미국의 교육체계를 받아들였다. 유럽의 도제식 조각교육방식의 장점들도 우수하였지만 교육부의 전체적인 교육체계가 미국의 교육방식을 수용하면서 오늘날의 조각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큰 틀에서 미술대학에서의 조각교육도 급속도로 발전하여 현재는 조각교육이 대학에서 조각과로 진행되는 대학의 규모는 서울을 소재로 9개 대학이고 인천, 경기, 강원권에 8개 대학, 대전, 충청도에 5개 대학, 부산, 대구, 경상도에 5개 대학, 광주 전라도에 3개 대학, 제주 1개 대학으로 모두 31개 대학에서 조각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대학의 규모나 대학원의 석,박사 운영은 차등이 있지만 국내의 수요를 넘어 외국으로부터 많은 유학생들이 유입되고 있고 특히 교류차원에서의 자매대학을 통한 In/Out bound의 교류 및 방문을 통한 조각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교마다 조각교육방식의 특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본 연구자는 홍익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기에 이번 소개에서는 홍익대학교의 조각교육과정을 간략히 소개한다.

조각교육과정 연구

홍익대학교는 한국의 미술대학 중에서 역사와 규모에 있어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다. 미술대학 내에 11개과로 구성되어있고 조각과의 경우 대학재학생은 110명 내외이고 석사과정 60여명 박사과정에 30여명의 인원이 있다. 교육과정분석 및 개선방안을 매 3~4년마다 재정비하여 교육방식에 적용한다. 연구지표는 다음과 같다.

1. 내부 환경 분석

1.1. 대학 비전체계 및 발전계획 분석 1.2. 학과현황 및 교육과정 분석 1.3. 내부 환경 분석 결과

2. 니즈 분석(Needs Analysis)

2.1. 재학생 , 전공능력 , 니즈 2.2. 산업체 니즈 2.3. 니즈 분석 결과

3. 외부 환경 분석

3.1. PEST 분석(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 환경) 3.2. 학문동향 및 산업현황 분석 3.3. 타 대학 벤치마킹 3.4. 외부 환경 분석 결과

4. 전공능력 모델링

4.1. 전공능력 초안 설정 4.2. 전공능력 검증 4.3. 전공능력 모델링

5. 대학발전계획과 학과 교육목표 및 전공능력 연계성 개선안

5.1. 학과 교육목표 체계도 5.2. 전공능력 정의서

6. 교육과정 도출

학과교육목표 및 전공능력 개선

6.1. 교과목 진단 및 도출 6.2. 모듈 및 트랙 구성 6.3. 교과목 편성표 6.4. 신규 및 개선 교과목 주요 내용

7. 교육과정 운영

7.1. 교육과정 운영방안 7.2. 비교과 및 융합 방안

결론

서방의 근,현대 조각교육방식의 수용과 한국적 변용이라는 방대한 연구범위를 짧은 시간 내에 전달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미술교육의 역사적 배경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한국의 조각교육은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를 통틀어 대학들의 우수한 교육과정의 사례와 결과를 벤치마킹하고 본래의 교육목표에 맞도록 접목하고 미래지향적인 계획과 모형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접목의 과정에서 변용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적인 과제를 정하고 성취도를 높여나간다. 조각교육방식의 발전에서 중요한 점은 학생들 개인별 맞춤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은 근본적으로 수요자의 성향과 요구를 기초로 많은 연구사례를 제공하고 면담을 통한 논의와 제작현장이나 기술자와 같은 미술현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창의적 태도를 기르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본다. 끝으로 국제적인 교류는 교육수요자의 사고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에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